

분류	2018년- 송구영신예배(12/31)
제목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경	이사야 62:1-12
일시	2017년 12월 31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결 론 - 세 가지 흐름과 그릇 준비

1.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
2.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3.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장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성경말씀 (이사야 62:1-12)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궁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 요약 자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12)

1. 기치를 든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 (이사야 62:1-5)

- 1)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이사야 62:2)
- 2)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 (이사야 62:3)
- 3) 여호와의 기쁨이요 여호와와 결혼한 자 (이사야 62:4)

2. 성벽 위의 파수꾼인 교회의 사명 (이사야 62:6-7)

- 1)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 (이사야 62:6)
- 2)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쉬지 말라. (이사야 62:6)
- 3)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7)

3.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 62:10)

- 1) 성문으로 나아가라.
- 2)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 3) 큰 길을 수축하라.
- 4) 돌을 제하라.
- 5)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 2017년 한 해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한 해였었다. 세계 있어서 2017년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있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 됐던 그리스도 운동이 1,500년 동안에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중세 시대 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였었다. 그 때에 소수의 몇몇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회복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 중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해가 바로 1,517년이였다.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 그 개혁운동은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성경 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앞에 더 많이 가르쳐지고 있었다. 하나님 보다는 인간을 더 높이는 그런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위안을 주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온 강단을 뒤덮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출발 했던 한 해였었다. 또 하나는 제 2의 RUTC라고 하는 램넛트 운동의 그 모체가 되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일곱 (7) 현장’이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됐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회복하자.’ ‘제 2의 RUTC’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일곱(7)현장’이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딱 와 닿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굴까? 바로 우리 개인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을 회복하는 메시지가 될까? 그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였었다. 그래서 저는 기도 할 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화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저는 개인의 십자가를 그럴 때마다 저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만든 나’는 십자가 속에 있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감격’했고 ‘감사’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가장 감사 했던게 휴스턴 안디옥 교회였었다. 늘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램넛트들한테 고백할 때마다 고백 했던게 뭐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교회와의 만남이었다.”라고 늘 간증한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행복했고 감사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 하나가 되었던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 분들 가슴에는 딱 하나가 있었다.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던 그 증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광영 원로 목사님과 함께 걸어왔던 증인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때문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만난 것이다. 성경의 안디옥 교

회를 생각 할 때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계속 매치해 본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꼭 회복하도록 저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저는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게 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고 교회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은 언제까지 가만 놔두어야 되는가? 그러려면... 저 현장을 살리려면 그냥 가면 되는게 아니다. 가서 계속 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이 너무나 필요 했던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아... 정말 현장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시스템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한 해였다. 그리고 20년 동안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헌신 하셨던 이광영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다.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였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의 세우고 다져졌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본문의 '이사야 62장' 말씀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감감함과 어두움이 만민과 온 땅을 덮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2018년도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민을 향한 이제 '깃발', '기치'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2018년도 한 해를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치를 든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민... 237개국을 향하여 기치를 들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이사야 62절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1.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라고 증거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루살렘이 빛을 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일하기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 일을 할 '개인', 이 일을 할 '교회', 이 일을 할 '만민'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이어야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휴스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한 번 잘 보시라. 62장 4절을 한 번 보겠다. **"4.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버림 받은 자'였고 우리는 '황무지'였던 그런 자들이었다. 창세기 3장으로 더럽혀진 자였었다. 죄로 더럽혀진 자였었다. 사탄에게 속임 받은 자였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아름다움이 없었던 자였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의'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이사야 6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간 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

음이 될 것이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의 이름은... 이제는 황무지였고 버림 받는 자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셔야 된다. 전 그것을 이름하여 '구원'이라 말한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우상숭배하며 자손이 삼, 사대 멸망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된 그 축복을 전 늘 감사한다.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축복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가졌다. 옛날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다. 새 이름으로 지어졌다. 여러분은 이제 '옛 날의 나'가 아니라 '구원 받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마귀가 속이는 '하나님 같은 나'...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자는 그의 걸작품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 받은 나'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새 이름으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더라. 오늘 62장 3절에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거듭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 같이 3절을 같이 읽겠다. **"3.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는 말이다. 왕의 영광을 들어낼 자녀들이란 말이다. 여러분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지 않는가? 자녀들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욕된다면 견딜 수 없지 않는가? 혹시 내가 모자라가지고 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표적인 사람인 바로 다윗이 그랬다. 그 골리앗이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높일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분노해야 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목동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났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갔지 않은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뿔들로 골리앗을 죽였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로 분노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왕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

데 그 왕의...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자꾸 잃어버린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다. 왕자이다. 공주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불신자들 앞에 여러분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재산' 그게 그들을 구원해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인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원해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라고 우리를 축복 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 했던 말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늘 62장 4절에 또 말씀하고 계신다. 후반절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헵시바'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속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성탄절이 되면 "Joy!~ Joy!~ Joy!~ I choose Joy!"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Joy'가 누군지 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했다는 말이다. '기쁨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헵시바'라고 하신단 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기쁨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다~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보신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려서야 되는데 모르니까 늘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농부 중에 한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지 않은가?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은가? 아무에게도 말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기쁨이었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때문에 온 그 기쁨이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바로 기쁨을 가진 자들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다.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또 다른 예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헵시바이다. 바로 왕의 아내이었다. 바로 이 왕이 헵시바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다. 어쨌던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바로 회복 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또 여기 보면 "빨라라"라고 말한다. 바로 '빨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 여러분... 결혼 할 때 아무나랑 결혼하는가? 이 5절을 한 번 보시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할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쁨... 기쁨 마음으로 받아들일 신부와 결혼 할 여자라고 대우 하신단 말이다.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지를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 기치... 깃발을 들기 이전에 들고 있는 내가 누구냐 말이다. 성도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아니다.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 기치를 들고 있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래서 성도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것 가지고 따지는 곳이 아니다. 비록 저래비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더 많다. 부족하고 상처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더 갑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보란 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중하다. 정말 그렇게 대하여야 된다. 2018년도에는 성도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보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고... 우리 후대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나는 이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겠는가?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의 파수꾼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이 평안하다. 만약이 이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되는가? 적이 호시탐탐 이 성을 넘볼 것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적은 저성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군사들을 보는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파수꾼인가? 잠자고 있지 않은 파수꾼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을 동안에는 적이 열신하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그 때가 기회이다. 적을 함락시킬 기회란 말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파수꾼은 곧 뭐냐? '교회'를 얘기한다. 교회가 만약에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만약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만일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를 지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지역의 성읍들을 다 무너트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그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지역은 황무지로 바뀐다. '버림받은 땅'이 돼버린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24시간 불을 켜야 되는 것이다. 바로 복음의 빛이 계속 밝혀져야 되는 것이다. 아침에만 빛을 발하고 저녁에는 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4시, 365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된단 말이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다. 다른 교회는 뭘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스도만 말하리라!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전도총회를 해산해 버리겠다." 저는 90... 그 청년이었을 때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운동하려 했던 목사님들을 저는 만났다. "그리스도만 결국 우리가 구원 받지 않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 운

동 해야 되지 않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건질 길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름때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더니 결국은 이 복음운동 하는 목사님들을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분들이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한도 끝도 없다. 우리를 욱하기를... 전도자를 계속 욱한다. 복음 전하는 길을 계속 틀리다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운다. 참고, 참고, 참아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우리 후대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회를 하나 세우게 된 것이다. 이름도 거창하게 ‘우리는 전도만 하겠다.’해서 ‘전도총회’라고 이름 지었다. 전도총회를 세우고 그 1대 총회장이셨던 박지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서 하셨던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뭘지 아시는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때문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만일 이 교단 조차도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해한해 버리겠습니다.” 그 분의 한 서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총회 자리에서... 저 뒤에서 울고 있었다. 저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겐 너무나 감격이 됐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만이라도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과 반대 되는 이야기를 전 세계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파수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거다. 결국 **“주야로 잠 잡하지 할라.”**하신다. 낮이든 밤이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쉬면 안 된다. 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말한다. 그리고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 하시게 하라”** 결국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파수꾼,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증인이 계시지 않는가? 20년 간을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축복하셨다. 앞으로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숫자를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면 다 된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면 다 된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파수꾼의 교회로 세우신 것이다. 휴스턴 700만을 살리라고. 우리가 무너지면 휴스턴이 무너진다. 휴스턴에 임하는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과학이 막는가? 의학이 막는가? 지식인이 막는가? 정치인이 막는가? 허리케인 하비 하나가 밀려 왔을 때 아무도 막지 못했다. 이 재앙은 누가 운행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재앙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재앙을 일으킨다. 그 때에 전쟁도 일으키는 것이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뭘까?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말한다면 재앙이 임할 일이 없다.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휴스턴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24시간 파수꾼의 등불을 끄지 마시기 바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성도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현장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 곳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흑

암이 임한다.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학교에 재앙이 임한단 말이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직장에 흑암이 임한단 말이다. 휴스턴 지역에 안디옥 교회마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휴스턴 지역에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성벽 위의 파수꾼인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이다. 다 같이 읽어 보겠다.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기치를 들라 하시는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만민’이 누구인가? 이사야 62장 2절에는 ‘이방 나라’라는 것이 바로 만민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다민족’이 바로 ‘이방인’이고 바로 ‘만민’이다. 이들이 지금 전 나라에 다 있다. “그 성문으로 나아가라.”합니다.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합니다. “돌을 제하라.”합니다.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합니다. 바로 뭘가? 237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것이다. 그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셨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결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닦으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짓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만민을 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만민을 품을 ‘전도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이다. 렘넌트는 ‘렘넌트 선교사’이고... 성도 여러분의 ‘현장의 선교사’다. 다 같이 일어나도 휴스턴 지역의 사람들을 언제 주께 다 돌아오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교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왜? 말씀을 따라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맛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체험해 봐야 된다.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멀다. ‘예배’와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성경’과 ‘나의 삶’이 다르다. 절대로 ‘성경적인 체험’을 못 한다. 왜 그런가? 말씀대로 한 번도 체험을 해 본 적이 없다. ‘성경적인 기도응답’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전도의 응답’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말씀과 내가 거리가 먼 것이다. 교회와 내 삶이 다른 것이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는 알게모르게 간격... 갭이 있다. 저도 사실은 그런게 있었다. ‘어? 성령충만?’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 ‘어? 미치는데 아닌가?’ ‘뭐... 이상하게 내 삶이 바뀌는거 아냐?’ 아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다. 아니다. 직접 그것을 한 번 말씀에 반응해서 집중을 한 번 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 만남의 축복이 이뤄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뤄지고... 제자가 발견되어 지고...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충만의 역사가 계속 되는 문이 열리

는 것이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거웠다. ‘아!~ 성령충만이란 내가 생각하는 성령충만이... 그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체험을 못 했구나.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라.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라.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는 그 ‘참 행복’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그 복음이 나를 ‘각인’, ‘뿌리’, ‘체질’된 다른 것을 치유하도록... 영육간의 질병이 이 복음 때문에 치유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내가 회복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회복 되도록... 그 회복 되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 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 복음의 말씀이 ‘뿌리’내릴 때만 그게 가능하다. 복음의 말씀이 ‘체질화’ 될 때만 그게 가능한 얘기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이들은 흠어지기 전에 반드시 뿔했는가? 기도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떤 때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집에 있던 지 성전에 있던지 언제든지 그들은 말씀 받고 나서 항상 기도 했다.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 할 것은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든지 현장의 지역 교회든지 간에 언제든지 모이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돼서 기도 하는 것을... 하나 되어야 된다. 바로 기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 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둔 자들만이 기도의 참 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게 바로 이방의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62장 11절, 12절... 함께 보겠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다.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한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읍이라”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다.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 했다.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도록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그 속에 ‘구원 받을 자’들이 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배가 조금 나눠지게 된다. 언어권별로 예배가 된다. 일단 요람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다. 여러분은 비록 한 언어권의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이 한 언어권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237개국’을 향하여 기도 하여야 된다. 비록 우리 교회가 몇몇 언어권 밖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 하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237개국의 나라에서 예배할 그런 교회를 그리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어느날 새벽 예배 때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다. 적어도 237명의 다민족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37개국의 나라... 우리 성도가 237명이 안 된다. 그리고 그 한 목회자가 100명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23,700명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 언어당 100명씩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237명의 그런 목회자와 23,7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교회를 짓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부터는 ‘다민족 선교’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제는 언어 때문에 핑계하지 마시라.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무슨말... 무슨말... 그런 말 하지 마시라. 모든 언어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영어를 하게 하시는가? 왜 저를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스페인어를 잘 하는가? 그 말 가지고 뭐하라고요? 한국말 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영어 잘 하는 사람은 영어로 복음 전하라고. 영어 잘하고 밥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그건 ‘부업!’ Secondary Job! Priority Job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진짜 그런 Priority가 정해져야 된다. 그럴 때에 정말 다민족 237개 나라를 살릴 줄 믿는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시라. 2018년도에는 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준비하시고... 우리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 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그 흐름 속에서 훈련 받기를 바란다. 오늘 이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시간... 2017년 한 해를 뒤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하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 고백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의 입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민’인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그런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가슴이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2018년도에 그 문이 열려지도록 함께 기도하겠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 이 응남 목사 부 목사 : 이 응남 목사 연 락 처 : (832)858-4885, (281)815-5361 자료작성 :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